

화성형 코로나19 피해 긴급 대응 예술지원 2차 신진 예술인 예술지원 공모를 심의하며

2020.10.12.

(재)화성시문화재단에서 공모로 진행하는 화성형 코로나19 피해 긴급 대응 예술지원은 코로나19로 예술활동이 중단되고 축소되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관내 예술인 및 예술단체를 대상으로 예술지원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예술 활동이 지속될 수 있는 안정적인 예술 창작 환경을 조성하고자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진행한 바 있는 1차 지원이 지역의 예술 활동이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해 예술인을 위기로부터 보호해야한다는 관점으로 진행된 예술인 지원 사업이었다면 이번 2차 지원은 예술활동 경력을 시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진' 예술인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공모는 청년기본법 제3조 1항의 나이 기준을 준용하여 신진 예술인의 범위를 설정 하였습니다. 물론 예술활동 경력에 따른 '신진' 예술인의 정의를 할 수 있으나, 이번 지원이 본격적인 예술활동 및 경제활동을 시작하기도 전에 코로나19 상황을 맞은 젊은 예술인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반영하여 나이를 기준으로 신진 예술인의 범위를 정의하였습니다. 재난 지원 성격의 예술지원이라고 하더라도 공공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화성의 신진 예술인을 발굴하고, 그들이 예술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후속 예술지원(1단계: 창작 → 2단계: 초연 → 3단계: 제작)을 염두하고 지원사업을 설계하였습니다. 후속 사업을 통해 이번 사업이 단순히 재난 지원금을 나누는 사업이 아니라 예술의 씨앗을 튀우고 건강한 나무로 키우는 지원사업이 되었으면 합니다.

심의 시 지원신청서, 포트폴리오, 영상 등의 자료를 토대로 예술인·단체의 전문성과 예술 성 등을 심의하였습니다. 예술인의 범위는 추상적일 수 있지만 자신이 예술의 길을 걸어왔다면 그것이 충분히 결과물로 제시될 수 있으며 그 결과물이 이번 예술지원의 성격과 부합 하지는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이번 예술지원은 '예술인'이라는 특수한 계층을 지원하는 공공지원으로 사업 결과로 적정한 성과물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식하여 제출하는 영상 콘텐츠의 정량적 기준을 설정하였습니다.(공고 참조)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계획된 많은 예술활동이 중단되었습니다. 예술인들이 활동할 무대와 전시장은 잠시 사라졌지만 다시 관객을 만날 시간을 준비하며 창작활동에 매진한다면 더 좋은 성과로 돌아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진 예술인 여러분의 건투를 빕니다.

공연부문 심의위원 : 김순화, 임철민
시각부문 심의위원 : 신미성아, 이정배
(가나다순)

끝.